



광주교통공사,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광주시 서구 마록동 본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위급 상황에서 필요한 대처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습득해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서부소방서와 함께 진행한 이날 교육은 △이레 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및 119신고 요령 △심정지 환자의 반응 확인 방법 △심폐소생술 요령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직원들의 현장 대처 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교통공사 조익문 사장은 “앞으로도 응급 상황 발생을 대비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공무원, 무등산서 환경정화활동

광주시 공무원 60여명이 무등산국립공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진)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재교육원 제33기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60여명이 무등산국립공원에서 환경정화와 안전시설 점검을 통한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봉사활동은 무등산 약사사에서 편백숲, 당산나무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산책로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등 탐방객들의 안전을 도모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교육생은 “공직자로서 시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정신을 배우고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무등산국립공원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병열 인재교육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교육생들이 헌신과 봉사의 공직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힐링캠프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김재춘)는 지난 4일 ‘보물기행: 아이라는 보물, 숨이라는 보물’이라는 주제로 2024년 2차 위탁가정 힐링캠프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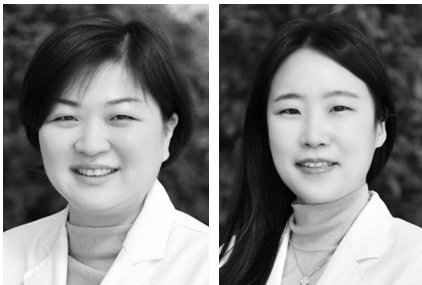
이번 힐링캠프는 광주 소재 위탁가정 총 20세대 69명을 대상으로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숲체원의 특화 프로그램, Food Art 가족상담 프로그램, 아동권리교육 등이 국립장성숲체원에서 진행됐다.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족 간 화합을 도모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위탁가정 힐링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는 위탁가정 정서강화 지원, 위탁가정 나들이, 친해지기 서비스, 부모교육 등 위탁가정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찬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국제학술대회 수상



안재숙 교수

김미희 교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혈액내과 안재숙·김미희 교수가 ‘제8차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29차 정기총회(ICBMT 2024)’에서 각각 최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7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안 교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서 예후 지표로서의 진단 NGS 패널 기반 연속 측정 가능한 미세잔존암 모니터링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안 교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유전성 특징 분석 및 보다 정확한 질환의 예후 예측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김 교수는 ‘노인기능평가를 이용한 저메틸화치료를 기반으로 치료받은 고령의 골수성 질환 환자의 조기사망 예측 제목의 논문을 통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수는 논문을 통해 고령 환자의 경우 고강도 치료에 적합한 환자를 선별하는 기준에 명확하지 않아 환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진단 시 노인기능평가를 통해 치료에 적합한 환자군 선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입증해 냈다.

김 교수는 “해당 연구를 통해 골수계 혈액암 환자의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호남대, 전국체육대회 광주시 선수단 결단식

호남대학교가 7일 학교 중앙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오는 11일부터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 105회 전국체육대회’에 광주시 대표로 출전하는 호남대 선수단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사진)

이날 결단식에는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과 각 단과대학 학·처장, 교수진, 김용기 광주광역시체육회부회장과 김창승 총동창회장, 종목별협회장, 체육학과 동문회 등 내외빈과 선수단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전국체전에 출전하는 호남대 선수단은 펜싱·탁구·볼링·씨름·체조·유도 등 11개 종목 47명(선수 35명, 감독·코치 12명)이 출전한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우리 고장과 대학을 대표하여 출전하는 능률한 우리 선수단을 보니 대견함이 느껴진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자신에게 몇몇한 자랑스러운 호남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동부소방, 전기차 화재안전대책 컨설팅

광주 동부소방서가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전기가 충전시설에 대한 관심 증가,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컨설팅을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컨설팅은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아파트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컨설팅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광주광역시 전기차 화재 발생은 총 7건으로 충전시설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소방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차 충전구역 지상 또는 지하 안전구역으로 이동설치 권고 △충전시설 인근 질식소화 덮개 등 화재진압장비 비치 안내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시 관리사무소 및 입주민 화재대응 행동요령 배포 등이다.

민현기 기자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김승남 전 국회의원 임명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적극 공사 경영 한단계 성장 기대

강기정 광주시장은 7일 시청 접견실에서 제12대 광주도시공사 사장에 김승남(58)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사진)

김 신임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 절차를 통해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받았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9월27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광주시에 송부했다.

김 신임 사장은 △재선 국회의원(제19대, 제21대)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등 30여 년 간 정당 활동을 이어온 중량감 있는 인사다. 탁월한 정무능력과 리더십으로 협력과 갈등해결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중앙부처 등 다양한 기관·단체와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광주에너지밸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공간 건



축 등 주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사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신임 사장은 “재원 조달이 관건인 도시공사 사업에 추진력을 더하는 한편 공사의 수익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신사업을 구상해 나가겠다”며 “광주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도시공사는 주택, 체육시설, 산단 등 시장의 다양한 영역에 함께하는 만큼 리더의 통합능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손을 잡아 달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이렇게 잘될 줄은”... 흑백요리사 열풍 외식업계 들쭉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열풍에 국내 외식업계가 들쭉이고 있다. 지난달 17일 공개 후 2주 연속 글로벌 톱10 TV(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요리예능 정체가 속 흑·백수저 요리사 서바이벌 대결은 스포츠 경기를 보듯 듯한 짜릿함과 재미를 줬다. SNS에는 심사위원인 외식사업가 백종원·미슐랭3스타 안성재 패러디 영상이 쏟아졌고, 출연자 100명의 가게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고 있다.

김은지 PD는 7일 서울 마포루 호텔에서 나루 엠밸리에서 열린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제작발표회에서 “이 정도로 큰 사랑을 받을 지 몰랐다”며 “요리사 100명의 매장 예약률이 급증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줘서 한국 외식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털어놨다.

“심사위원과 요리사 100명 덕분에 출연진들의 완벽한 신규 조화가 이뤄졌다. 평소 몰랐던 요리사를 알게 되고, 친숙한 분들의 새로운 면모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안성재 심사위원과 흑수저 셰프들은 이 방송을 통해 알게 된 면이 많을거다. 백종원, 최현석, 정지선 등은 유명한 분들인데, ‘이런 면모가 있었어?’라며 놀란 분들이 많다. 모든 라운드를 통과한 분은 대한민국 최강자가 될 것 같다. 내일 공개하는 파

이날 무한요리지옥은 창의성의 한계를 시험하는데, ‘지옥의 맛을 봤다’고 할 정도로 치열한 개인전이 펼쳐졌다.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 받는 ‘흑수저’ 요리사가 최고의 스타 요리사 ‘백수저’에게 도전장을 내민 100명의 서바이벌이다. 총 12부작으로 10회까지 공개한 상태다. 백수저 요리사 최현석·정지선·장호준·에드워드 리, 흑수저 요리사 트리플 스타·요리하는 돌아이·이모카 세 1호·나폴리 맛피아가 톱8에 들었다.

2라운드에서 심사위원이 슈퍼패스를 사용, 흑수저 요리사 2명이 추가 합격했다. 톱8 역시 흑·백수저 4명씩 이뤄져 ‘숫자를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김학민 PD는 “이 점은 꼭 설명하고 싶었다. 3라운드에 슈퍼패스 2명 포함해 22명이 올라가는 룰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면서도 “(흑·백수저가) 11대 11이 된 순간, 제작진은 숫자가 엇갈리면 제일 리얼하지 않을까 싶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다. 톱8도 흑넷, 백넷인데, 우리 의견과 무관하게 정해졌다. 개인적으로 엇갈리길 원했는데 아쉬웠다. ‘꼭 맞춰야 해’라고 의도한 건 없었다”고 설명했다. 11~12회는 8일 오후 4시 공개.

뉴시스